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정부, 내년 예산(안) 수정보다는 보완책을 마련

- 최근 일각에서는 '09년 성장전망을 추가로 하향조정하고 있어 정부가 제출한 '09년 수정예산(안)이 대내외 여건만을 감안할 경우 새로운 수정예산(안)으로 제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.
 - 이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부정적 효과가 국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로의 전이,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둔화 등을 감안할 경우 경제성장이 3% 내외(2.8~3.2%)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에 기초한 것임.
- 이러한 대내외 여건하에서 정부는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총 33조원 규모의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4% 내외의 성장을 이루겠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음.
 - 국내 연구기관들과 비교하면 정부 정책 효과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긴 하나, 기본적인 상황인식에 대해서는 유사한 견해임.
-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 상황에서 대외경제 여건의 추가적 악화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으나, '09년 전망의 재수정과 새로운 수정예산(안) 마련을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함.
 - 무엇보다 '09년 예산(안)을 법정기한내 확정하여 내년초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함으로써 예산의 실물경제 활성화 효과를 최대화할 필요가 있음.
 - 단,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신용경색 현상 등으로 대다수 선진국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등 세계 각국의 성장 전망이 계속 하향 조정되는 추세임.
- 이에 정부는 세계경제 흐름 등 대외여건의 전개 상황 및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, 금년말 수립 예정인 '09년 경제운용 방향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임.

(2009년 예산(안) 편성 전제인 성장률 전망 관련-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, 11/24)